

코로나19 시기의 아동학대 연구 동향분석

강영식*, 오경숙** 김옥선*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geb1568@daum.net

A Study on the Trends of Child Abuse Research in COVID-19 Pandemic

Young-Sik Kang*, Kyung-Sook Oh**, Ok-Seon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발행한 KCI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논문 189편을 대상으로 학문분야,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문분야별로 분석해본 결과 분석 논문의 87.8% 이상이 사회과학 분야 학회에서 발행되었다. 둘째,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으로는 학대의 영향, 실태 및 인식, 제도·법·정책 등의 순으로 논문이 발행되었다. 셋째, 연구유형별 특징으로는 실증과학적 연구 중에서도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넷째,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연구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1. 서론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후 지금까지 약 15년간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는 아동학대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서, 신체, 방임, 성 학대 순으로, 단일 유형의 학대보다 중복학대(정서학대+신체학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내에서의 학대가 전체 87.4%로 높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지만 계부모와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직원과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늘고 있으며 이슈화 되고 있다[1].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특성 때문에 공식 통계로 드러나지 않아 ‘암수(暗數)범죄’라고도 불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은폐된 아동학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보도됨을 볼 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약 30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연구물 축적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

으나 짧은 시기 동안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이 어떻게 확장 및 이동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 파악은 갈수록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있어서 이론적 초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아동학대 연구는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발행되는 논문의 주제나 논의 내용 등이 다를 수 있다. 1961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복지관련 법인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2011년 아동학대의 정의 및 신고의무자 확대·강화 등이 시행되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절차가 강화되었다[2]. 또한 2015년~2018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2019년~2020년에는 전담공무원이 개입되면서 대응 인프라가 증가 하였다. 2021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주관을 지정하였다 [3]. 이처럼 정부와 지역사회는 아동학대를 범죄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는 학술적 연구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선행된 아동학대 동향 연구의 결과와 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우경[4]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된 아동학대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실태나 원인 파악에 치중하고 있는 논문에 비해 대책 관련 논문이 부족하고,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방과 치료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와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학대까지 다룰 수 있는 종단적 차원의 연구 및 아동학대를 둘러싼 요인을 심층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차미숙과 김광웅[2]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한 KCI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중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대상 논문중 학문분야, 발행연도,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관련논문 수는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3이상이 사회과학분야 학회에서 발행되었으며, 학대의 영향, 실태 및 인식, 제도·법·정책 등의 순으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주제 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연구가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연구의 흐름을 다양한 영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코로나시기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학문분야별 아동학대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둘째, 연구주제별 아동학대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셋째, 연구유형별 아동학대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넷째, 연구대상별 아동학대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2. 분석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20년 1월부터~2021년 12월 까지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국내 학술연구논문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riss.kr)에서 제목에 ‘아동학대’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 중 등재(후보)지에 실린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후 저자, 발행연도,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고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을 1차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89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분석절차

연구 대상 논문에 대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 아동학대 동향 연구를 리뷰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여 세부적으로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둘째, 1차 분석절차로 연구자가 분석 기준에 맞게 전체 논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하였다. 논문의 제목과 초록으로 최초 분류하였으며, 두 번째에는 본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 후 최초 분류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셋째, 분류된 논문을 차미숙과 김광웅[2]의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하였다. 넷째, 분석 정확도를 위해 이전 단계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논문에 한해 유아교육 전공자 2인이 최종 결정하여 분류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 논문들 송민경, 2013차미숙과 김광웅)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크게 5가지(발행연도, 학문분야,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로 분석틀을 선정하였다. 분석틀에 따른 자료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 연구동향 분석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학문분야

학문분야별 분석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를 총 8가지 주제(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로 구분한다.

2.3.2 연구주제

연구주제는 선행 동향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 ①실태 및 인식, ②제도·법·정책, ③학대의 원인, ④학대의 영향, ⑤개입 프로그램, ⑥연구와 도구 개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3.3 연구유형

연구유형은 ①실증과학적 연구 ②개관 및 이론 연구 ③프로그램 및 사례연구 ④질적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실증과학적 연구’는 일반적인 조사연구, 내용분석 연구, 통계자료분석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개관 및 이론 연구’는 문헌연구를 포함한 고찰연구, 판례연구, 메타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및 사례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근거이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면접, 면담, u-test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3.4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체 분석 논문 중에서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논문(패널조사 포함)에 한해 ①아동 ②부모 ③가족 ④신교의무자 ⑤기타 관련 종사자 ⑥그 외 성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번 분석대상 논문에 가족에 해당되는 논문은 0개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학문분야별 연구동향

[표 1] 학문분야별 빈도분석

학문분야	학회명
사회과학(166)	
사회복지학(32)	복지상담교육연구(1), 사회복지연구(3),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1), 아동복지연구(1), 청소년복지연구(2), 청소년 시설환경(1), 학교사회복지(6), 한국가족복지학(1), 한국가족사회복지학(1), 한국사회복지연구회(2),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1), 한국사회복지학(2), 한국아동복지학(9), 한국장애인복지학(1)
교육학(31)	교육문화연구(1), 교육연구(1), 교육융합연구(1), 미래유아교육학회(2), 아동과관리(7), 아동교육(1), 아동보호연구(5), 열린유아교육연구(1), 유아교육논집(4), 청소년학연구(1), 특수교육(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5), 아동문학연구(1)
법학(22)	민사법 이론과 실무(1), 범죄수사학연구(2), 법과사회(1), 법과 정책연구(1), 법률실무연구(1), 법학논총(1), 법학연구(1), 비교법연구(1), 비교형사법연구(2), 사회법학연구(2), 사회복지법제 연구(2), 이화젠더법학(1), 피해자학연구(3), 한국비교형사법학회(1), 한양법학(1), 헌법재판연구(1)
심리과학(20)	교정상담학(1), 문학치료연구(1), 미술치료연구(1), 상담심리교육복지(1), 상담학연구(4), 심리 유형과인간발달(1)재활심리연구(3), 정서행동장애연구(1),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1), 한국심리학회지(5), 한국중독범죄학회보(1)
기타사회과학(26)	가족과 가족치료(1), 발달지원연구(1), 생명연구(1), 인간발달연구(3), 인간이해(1), 인권과정의(1), 인문사회(2), 인문사회21(10), 인문사회과학연구(2), 청소년 문화포럼(2), 통계연구(1), 한국청소년연구(1),
사회과학 일반(15)	관광연구(1), 국민안전학회지(1), 동광(1), 부모교육연구(1)안전문화연구(1), 어린이미디어연구(1), 육아정책연구소(3), 일본학연구(1), 한국보육지원학회지(1), 한국비전연구(2), 한국산학기술학회(1), 한국영유아보육학(1)
행정학(7)	한국경찰연구(1), 한국범죄심리연구(3), 한국범죄정보연구(2), 한국범죄학(1)

정책학(13)	가족지원경영과정(1), 공공정책연구(1), 국가정책연구(1), 사회복지정책과 실천(1), 육아정책포럼(1), 지방행정연구(1), 치안정책연구(3), 한국자치행정학(1), 한국정책과학학회보(1), 한국청소년 정책연구(1), 형사정책연구(1)
의약학(9)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2), 한국간호과학회지(1), 한국모자보건학회지(2), 한국보건사회연구(2), 대한영상의학학회지(1), 대한소아응급학회지(1)
복합학(9)	한국컴퓨터연구학회지(1), 한국컴퓨터 정보학회논문지(1), 한국컨텐츠학회(4), 젠더리뷰(1),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1), 융합정보논문지(1)
인문학(1)	Global Creative Leader(1)
공학(2)	토지공학연구(2)
건축학(2)	대한건축학회(2), 한국셉테드학회지(1),

분석대상 논문 189편을 KCI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①사회과학, ②의약학, ③복합학, ④인문학⑤공학⑥건축학 등의 순으로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표 2] 연구주제별 빈도분석

	연구주제	N(%)
학대의 영향	자살생각 우울, 성역할태도, 신체화증상 등	98(51.9)
실태 및 인식	아동학대범죄현황, 아동학대 부모인식 등	35(18.5)
제도·법·정책	법적 처리·처벌, 보호	35(18.5)
개입 프로그램	아동학대 범죄 대응방안 및 개선 등	15(7.9)
학대의 원인	가족(아동, 부모 요인)	4(2.1)
연구와 도구 개발	학대 평가·변별 도구 검증 및 개발	2(1.1)
전체		189(100.0)

[표 2]와 같이 연구주제별 동향은 아동학대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전체 중 5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와 제도·법·정책을 주제로 한 논문은 각각 1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입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연구는 7.9%,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2.1%, 연구와 도구개발 영역이 1.1%를 차지하였다.

3.3 연구유형별 연구동향

분석 대상 논문 189편을 연구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실증과학적 연구가 44.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개관 및 이론 연구 40.7%, 질적 연구 10.1% 프로그램 및 사례연구 4.8% 순으로 나타났다.

3.4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전체 189편 중에서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논문 총 102편

에 한해 연구 대상별로 분석하였으며, 한 연구에서 여러 대상을 동시에 조사한 경우 중복으로 체크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의 36.7%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그 외 성인(25.7%), 신고의무자 22.2%, 부모 12.8%, 기타 관련 종사자 2.8%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국내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20과 2021년 국내에서 발표된 KCI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논문 189편을 대상으로 학문분야,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 및 결론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학문분야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로 사회과학 영역에서 아동학대 논문을 발행하였다. 그 중에서 아동과 권리와 아동 보호연구 분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실태와 아동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인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법학에서는 개입 방안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한 부분을, 른 영역에서도 소수의 논문을 발행하여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재발을 막기 위한 시도로써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학대의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ADHD,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아동이 많음을 볼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일 것이다.

셋째, 연구유형별로 실증과학적 연구와 개관 및 이론 연구가 많았고, 대상별 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아동을 제외한 다른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의 누적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대 행위자는 여전히 친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이 존재하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를 반영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패러다임의 대응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 청소년,

부모나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양육과 보육에서의 쌍방향 상호작용의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2021년
- [2] 차미숙, 김광웅.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 부모교육연구, 제 19권 1호, pp. 41-64. 2017년.
- [3]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FOCUS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13년 서현이 사건이후 아동학대 예방 어디까지 왔나?-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경기: 경기복지재단. 2021년.
- [4] 서우경. “국내·외아동학대 연구동향의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 3권 1호, pp.41-77. 2001년.